

## (제1편) 베트남의 농업 개황

김정호\*

### 1. 머리말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sup>1)</sup>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동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중국과,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는 해안선이 3천km에 달할 정도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총면적은 33만km<sup>2</sup>이고, 총인구는 9,600만 명으로 정부가 인정한 민족 수가 54개나 되는 다민족 국가이다.

국토는 위도의 범위가 넓고 기후 차이가 커서 몬순·열대 몬순·아열대 사바나 등의 기후대에 따라 다양한 농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토의 30%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농업생산은 2모작과 3모작이 가능하다. 특히 홍강과 메콩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여 세계 제3위 쌀 수출국이 되었고, 커피와 천연고무도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의 농림어업 비중이 15%에 달한다. 선진국들의 자본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의 형태가 현대화되고 최근에는 스마트팜(smart farm)도 시도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식생활도 변화하여 육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로서 공산당이 정부를 주도하고 있다. 행정 구역은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9개의 성으로 나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7년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고, 많은 나라와 우방 국가를 도모하여 16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UN과 산하의 주요 국제기구에 거의 대부분 가입하였다.

한국과는 1992년에 공식 수교가 재개된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2014년에 양국간 농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kreikjh@naver.com

1)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농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향과 현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 편부터는 구체적으로 쌀산업(제2편), 축산업(제3편), 농식품산업(제4편), 국제농업협력(제5편) 등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농업 여건과 산업적 지위<sup>2)</sup>

### 2.1. 국토와 자연환경

베트남의 국토면적은 2019년 기준 33만 1,236㎢로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한다. 전 국토의 75% 이상이 산악·구릉·고원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서부의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부근이 가장 고도가 높고, 여기서 라오스 국경을 따라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북부의 홍강 삼각주와 남쪽의 메콩강 삼각주 및 중부 고지의 계곡과 고원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홍강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하여 톤킨만으로 흐르는 1,200km에 달하는 강으로 하류에 홍강 삼각주 평원을 형성하고, 이 지역에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한다. 그리고 메콩강은 길이가 4,220km에 달하는 강으로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거쳐 베트남에 이르러 해안까지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1> 베트남의 국가 개황

국토 지도	주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li> <li>● 면적: 331,236㎢ (2019년, 베트남 통계청)</li> <li>● 수도: 하노이(Hà Nội)</li> <li>● 인구: 9,621만 명</li> <li>● 민족 구성: 총 민족 수 54개, 그 중 비엣족 85%</li> <li>● 종교: 대표종교 천주교</li> <li>● 기후: 열대몬순기후</li> <li>● 정치 체제: 사회주의 공화제</li> <li>● GDP: 2,619억 달러 (2019년, World Bank)</li> <li>● 1인당 GDP: 8,065달러 (2019년)</li> <li>● 경제성장률 : 7.02% (2019년)</li> </ul>

주: 지도는 인터넷 캡처, 주요 지표는 KOICA 자료에서 정리.

2) 이 절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베트남 농업』(2019년) 을 기본으로 하여 최근의 통계 수치는 ‘kotra 국가정보 - 베트남’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용하였다.

베트남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동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기 때문에 위도의 범위가 넓고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다. 북부 지역은 4계절이 있는 몬순기후이며, 남부 지역은 우기와 건기 2계절만 있는 열대몬순기후를 나타낸다. 그리고 남부 지역은 3~5월에, 북부는 5~7월에 가장 덥다. 북부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섭씨 20도 미만으로 산간 지방에는 눈이 내리기도 한다.

베트남의 연평균 강수량은 1,400~2,400mm이며, 우기에 연간 강수량의 80~90%가 발생한다. 남부 지역에서는 5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1월경에 우기가 끝나고, 북부의 홍강 삼각주 지역은 7~8월이 장마 절정기간이다. 일조 시간은 전국이 연간 1,400~2,600시간 수준이며, 특히 남부와 중부는 연간 일조 시간이 2,000~2,600시간으로 거의 연중 일조량이 풍부하다.

농경지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200만ha이며, 전 국토의 39%를 차지한다. 1980년대부터 정부가 황무지 개간과 간척사업 등 경지확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경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농지 중 관개 수리면적이 약 37%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농지개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메콩강 삼각주 지역이 쌀 주산지로 발전하고 있다.

<표 1> 베트남 농경지 이용 추이(1995~2017년)

구분	1995	2005	2017
농지 비율 (% , 전체 토지 비율)	22	32	39
산림 비율 (% , 전체 토지 비율)	32	42	48
농지 면적 (1000ha)	7,079	10,054	12,168
영년생작물 및 관개지 면적 (1000ha)	1,348	3,054	4,538
경작지 면적 (1000ha)	5,403	6,358	6,988
경작 비율 (%)	1.5	1.4	1.2

자료: FAO Statistical Factbook. KOICA(2019)에서 재인용.

<그림 2> 베트남의 농경지 모습



중부 산악지역 개간지



남부 메콩지역 평야지

## 2.2. 경제 및 산업 동향

1975년 공산주의로 통일에 성공한 베트남은 이듬해인 1976년에 공산당 제 4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대회에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집단화 그리고 공·농·상업 활동의 집단화를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었다. 1995년까지 사회주의 과도기로 규정하고, 식료품 및 일상 소비재의 대량 공급을 위해 농업 발전과 경공업에 중시하고, 이후에 중공업 우선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친 신경제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1986년 12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골격으로 하는 도이머이(Doi Moi)<sup>3)</sup>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개혁 개방 정책에서 신외자법, 외국인투자법, 외국환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99%까지도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과실금의 송금도 허용하였다. 또한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과도기를 2000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사회의 안정화와 발전전략으로 경제개발 10개년계획(1991~2000)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업과 공업의 양면에서의 산업을 추구하고, 단계적으로 석유화학·전자·기계공업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표 2〉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	6.68	6.21	6.81	7.08	7.02
명목GDP (억\$)	1,912	2,013	2,203	2,412	2,616
1인당 GDP (PPP, \$)	6,048	6,422	6,917	7,513	8,065
정부부채 (% of GDP)	57.1	59.6	58.2	55.5	54.3
물가상승률 (%)	0.63	2.67	3.52	3.54	3.6
실업률 (%)	2.33	2.33	2.21	2.21	2.21
수출액 (백만\$)	162,016	176,580	215,118	243,483	264,189
수입액 (백만\$)	165,776	174,978	213,215	236,687	253,070
무역수지 (백만\$)	-3,759	1,602	1,903	6,795	11,118
외환 보유고 (백만\$)	28,250	36,527	49,075	55,452	78,334
이자율 (%)	6.5	6.5	6.25	6.25	6.0
환율 (자국통화)	21,697	21,935	22,370	22,602	23,050

자료: kotra 국가정보 - 베트남.

3) 베트남어로 도이머이(Đổi mới)는 ‘쇄신’이라는 뜻. đổi는 ‘변경하다’, mới 는 ‘새롭게’ 라는 의미이다.(네이버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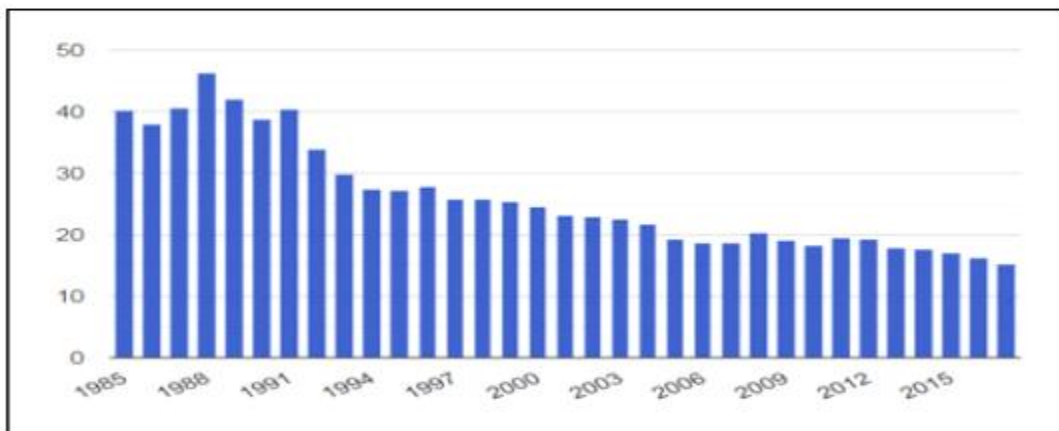
이러한 개혁정책으로 베트남은 1992년에 최고 8.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199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실현하였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통상금지조치)가 1994년에 해제되는 등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상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2000년대에도 이어졌다. 그 결과 2001년에도 약 7.2% 성장률을 기록하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0년대 들어 소니, 미쓰비시,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4년까지 7%대, 그 이후에는 8%대를 기록하였는데, 2006년에는 외국인 투자율이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하여 70억 유로(약 8조 5,648억 원)를 넘어섰으며, 2006년에 미국 인텔그룹은 반도체 공장에 2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였다. 최근 외국기업들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 분야의 성장률이 매우 높다.

2019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02%를 기록하여 연초 목표(6.8%)를 초과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에도 경제성장률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나, 연초에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2020년 10월에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3%에 이를 것으로 최종 추산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5%에서 2011년 20%로 하락하면서 경제구조는 서비스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조사한 1985~2017년 농림어업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26.1%이며, 1988년 46.3%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2017년에는 15.3%로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GDP 성장률은 2006~2017년 동안에 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베트남의 농림어업부문 GDP 비중 추이(1985~2018년)



자료: World Bank.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한편, 코로나19와 세계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으로 베트남 경제에도 여파가 있었지만,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줄만큼 내부 요인은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해소된다면 경제성장률이 금세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은 미-중무역분쟁으로 가속된 글로벌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에 따라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권이 대중국 공동압박 전략을 추진하여, 다자간 공조체제를 구축할 경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베트남은 2020년 8월에 EU와의 FTA를 발효시켰고, 2019년 1월 발효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비롯하여 세계 최대의 FTA라고 불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0년 11월 발효)에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대가 크다.

### 2.3. 농업·농촌인구 동향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9년 기준 9,621만 명이다. 정부가 공인하는 민족 수가 54개에 달할 정도로 소수 민족이 많으며, 이 중 비엣족(또는 낌족이라고 불림)이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에는 인구성장률이 높아 연평균 1.0%씩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286명으로 한국(530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의 지역 분포를 보면, 홍강 삼각주 지역과 북부 중앙 및 중앙 해안지역에 각각 전체 인구의 44%(각각 22.8%와 21.2%)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홍강 삼각주 지역은 면적이 2만 1,260km<sup>2</sup>에 불과하지만,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인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1,014명으로 전국 평균치의 3배가 넘는다.

농촌인구는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총인구의 약 65%인 6,200만 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중 지역 및 중앙 해안지역에 전체의 24%인 1,428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22%인 1,325만 명, 홍강 삼각주 지역에 21%인 1,28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구 비율은 1995년 7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직업과 삶을 찾아 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농가 수는 2014~2017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3만 1,668호로 전년대비 6.4% 감소하였다. 전통적으로 농가의 비중이 높은 홍강

삼각주 지역의 농가 수는 전년대비 9.2% 감소한 반면, 북중 지역 및 중앙 해안지역의 농가 수는 7.7% 증가하였다.

농가의 영농유형별 분포를 보면, 전체 농가 중 축산농가가 1만 9,639호로 62%를 차지하며, 경종농가가 26.8%, 어가가 7.4% 순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홍강 삼각주의 축산농가 수는 전체 축산농가의 40.1%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동나이(Đông Nai)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표 3〉 베트남의 농촌인구 추이(1995~2018년)

구 분	1995	2005	2016	2018
전체 인구 (백만)	74.9	83.8	93.6	95.5
농촌 인구 (백만)	58.5	61.3	61.9	61.8
농촌인구 증가율 (연간 %)	-	10.0	-3.0	-10.0
농업종사인구 비율 (%)	70.6	54.6	41.9	40.2 (2017)
농업종사여성 비율 (%)	71.1	56.7	43.5	41.5 (2017)

자료: FAO STAT. KOICA(2019)에서 재인용.

〈표 4〉 베트남의 지역별 농촌인구 추이(2010~2018년)

단위: 천 명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60,432	60,642	60,766	60,855	60,836
홍강 삼각주지역	13,802	13,739	13,464	13,190	12,847
북부 중산간지역	9,342	9,676	9,800	9,902	10,009
북중 및 중앙 해안지역	14,215	14,092	14,142	14,212	14,280
중앙 고원지역	3,717	3,981	4,036	4,092	4,135
남동부지역	6,182	5,959	6,113	6,247	6,313
메콩강 삼각주지역	13,174	13,196	13,211	13,211	13,254

자료: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8.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표 5〉 베트남의 지역별 농가 수 현황(2018년)

단위: 호

구 분	전체	경종	축산	수산	기타
전체	31,668	8,499	19,639	2,332	1,198
홍강 삼각주지역	9,192	64	7,882	968	278
북부 중산간지역	3,030	411	2,429	69	121
북중 및 중앙 해안지역	3,777	663	2,086	303	725
중앙 고원지역	3,645	2,428	1,182	14	21
남동부지역	6,067	1,720	4,274	51	22
메콩강 삼각주지역	5,957	3,213	1,786	927	31

자료: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8.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 3.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 동향4)

#### 3.1. 농산물 생산

베트남은 1980년대까지 기근에 시달렸지만, 현재는 개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식량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 쌀, 옥수수, 카사바, 커피, 차 등이 주요 생산품목으로 생산액 비중으로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생산 동향을 보면 식량작물, 곡물, 작물, 축산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카사바, 고무, 커피 등 특용작물의 생산 증가가 빠른 편이다. 2004~2006년 기준(100)으로 2018년 비식량작물의 생산지수는 173을 기록하였다.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 현황을 보면, 쌀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주요 작물이다. 이와 같이 쌀은 베트남 농가의 기간작물로서 2018년 기준으로 약 4,400만 톤의 쌀을 생산하였다. 품종별로는 자스민(Jasmine), 속짱(Soc Trang), 낭호아(Nang Hoa) 등 향미 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쌀 다음으로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카사바 등이다.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을 보면, 농경지의 약 80%에 쌀이 재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메콩강 삼각주가 주요 재배지역으로, 베트남 전체 쌀 생산량의 90%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쌀가격이 정체되면서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땅콩, 고무, 커피, 차, 카사바와 같은 특용작물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생산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아열대성 과일도 많이 재배되고 있다.

〈표 6〉 베트남의 농업생산지수 추이(1995~2017년)

구 분	1995	2005	2017
농업 총생산량 (십만 \$)	12,721	20,628	28,025
농업 총생산지수	58	99	138 (2016)
식량 총생산지수	62	100	136 (2016)
비식량 총생산지수	30	94	173 (2016)
작물 총생산지수	60	99	135 (2016)
과일 및 야채 총생산지수	66	100	157 (2016)

주: 지수 2004-2006=100

자료: FAO STAT, KOICA(2019)에서 재인용.

4) 이 절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베트남 농업』(2019년)을 기초로 이현근 외(2019), 응옌 탄 끄영(2020)에서 편집 정리하였다.

베트남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벼 재배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757만ha이다. 2018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104만ha이고,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27만ha로서 전년대비 각각 5.5%와 4.3% 감소하였다.

쌀과 옥수수 생산량은 2015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탕수수는 2013년부터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쌀 생산량은 4,398만 톤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으며, 옥수수(491만 톤)와 사탕수수(1,784만 톤)의 생산량은 각각 4.0%와 2.8% 감소하였다.

<표 7> 베트남의 주요 단년생 작물 재배면적 추이(2005~2018년)

단위: 천ha

연 도	벼	옥수수	사탕수수	땅콩	콩
2005	7,329	1,053	266	270	204
2010	7,489	1,126	269	231	198
2015	7,828	1,179	284	200	101
2016	7,737	1,153	268	185	100
2017	7,705	1,100	281	196	68
2018	7,570	1,039	269	186	53

자료: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8.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표 8> 베트남의 주요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 추이(2010~2018년)

단위: 천ha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과일	포도	0.9	1.4	1.4	1.3	1.4
	망고	87.5	83.7	86.8	93.9	99.6
	오렌지	75.3	85.4	101.3	112.5	120.8
	용안(Longan)	88.4	73.3	73.5	75.9	78.8
	리치(Litchi)	101.7	90.6	87.5	84.1	83.0
다년생 경제작물	캐슈너트	379.3	290.4	293.1	299.9	301.0
	고무	748.7	985.6	973.5	969.7	965.4
	커피	554.8	643.3	650.6	677.6	688.4
	차	129.9	133.6	133.4	123.0	123.7
	후추	51.3	101.6	129.3	149.7	149.9

자료: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8.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과일 중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품목은 오렌지로 2018년에 전년대비 7.4% 증가한 12만ha를 기록하였으며, 다년생 경제작물 중에는 고무 재배면적이 97만ha로 가장 많다. 망고와 오렌지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

운데,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각각 6.1%와 7.4% 증가하였다. 경제작물 중에서는 커피 재배면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커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하였다.

과일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도 오렌지로 2018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106만 톤이며, 망고는 5.8% 증가한 79만 톤을 기록하였다. 다년생 경제작물 중에는 커피 생산량이 163만 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고무 114만 톤과 차 99만 톤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가축별 사육두수를 2005년 이후 통계에서 정리하면, 버팔로를 제외한 소, 돼지, 가금의 사육두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의 사육두수는 2007~2013년 동안에 감소를 나타냈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8년 기준 580만 마리이며, 돼지는 2815만 마리, 가금류는 4억 900만 마리가 사육되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표 9〉 베트남의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2005~2018년)

단위: 천 두, 가금류는 백만 수

연 도	버팔로	소	돼지	가금류
2005	2,922	5,541	27,435	220
2010	2,877	5,808	27,373	301
2015	2,524	5,367	27,751	342
2016	2,519	5,497	29,075	362
2017	2,492	5,655	27,407	386
2018	2,415	5,803	28,152	409

자료: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8.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 3.2. 농산물 수출입

베트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입은 2018년 말 기준으로 400억 2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무역 흑자는 8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와 목재 제품, 수산물, 과일·채소, 커피, 캐슈너트, 쌀, 고무, 차, 후추,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등이다. 2018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새우, 과일·채소, 캐슈너트, 커피, 목재와 목재 제품 등 5개 품목이다.

특히 쌀은 1989년에 자급을 달성한 이후 베트남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26%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323만 톤을 수출하여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커피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출국으

로서 저가 인스턴트커피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후추는 세계 수출시장 60%를 점하여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농림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미얀마, 미국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 돼지고기, 우유, 수산물과 쌀 등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쇠고기, 싱가포르에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을, 일본 시장에는 닭고기를, 미얀마 시장에 냉동 돼지고기를, 미국에 카이니토(Cainito) 과일을, 뉴질랜드에 람부탄(Rambutan) 과일을, 유럽에 패션푸르츠(Passion Fruit) 과일을 주로 수출하였다.

베트남은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쌀, 커피, 캐슈너트, 채소, 고무 등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쌀, 커피, 고무, 카사바, 차, 열대과일, 사탕수수 등의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입액 추이(1995~2017년)

단위: 1000\$

구 분		1995	2005	2017
커피 차 코코아 등 (Coffee+Tea+Cocoa+Sp)	수출	655,968	1,000,505	5,042,191
	수입	3,570	31,888	302,169
쌀 (Rice - total)	수출	530,000	1,407,229	2,634,588
	수입	3,300	215	41,961
캐슈너트 (Cashewnuts)	수출	34,000	503,100	3,385,090
	수입	-	-	2,523,137
신선과일 (Fruit, fresh)	수출	920	43,506	1,479,306
	수입	90	4,773	238,54
후추 Pepper	수출	24,500	151,500	1,117,980
	수입	-	-	67,815

자료: FAO STAT. KOICA(2019)에서 재인용.

### 3.3. 농식품 소비

농림어업의 성장에 따라 베트남 국민의 식생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빈국에 속하였다. 국민의 일반적인 식생활은 쌀과 허브(herb)와 채소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육류는 생일과 제사 등 특별한 날에만 먹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육류 소비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여 3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정도로 증가한 풍요로운 식생활 수준을 실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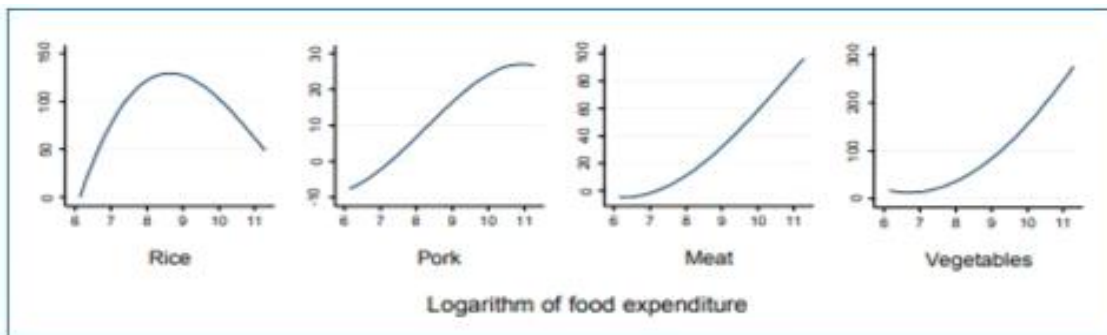
베트남은 1986년에 ‘도이머이(Doi Moi)’ 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업의 생산과 소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개방정책에 따른 성공적인 경제발전으로 커피와 쌀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축산부문도 크게 발전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육류 수요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 30여 년 동안 GDP 성장률이 6%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1인당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 9,600만 명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15~64세의 근로 연령대 인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독립적인 가계의 수가 2,700만 호에 달하고 있다. 인구 구성에서 식품 소비의 기반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곡인 쌀의 소비 동향을 보면, 인구 증가에 따라 전체 쌀 소비량은 증가 추세로 2019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138kg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건강식품 선호 경향이 확산되면서 쌀 소비량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고급 수입육을 비롯하여 건강식품 등 대체식품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돼지고기의 생산과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따라서 가계의 식료품 총지출액에서 육류 소비에 대한 지출이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류 소비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육류 소비량은 2013년에 3.6백만 톤, 2014년에 3.9백만 톤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4.5백만 톤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육류소비량은 2017년 기준으로 34.5kg를 기록하였다(한국 55.9kg, 호주 94.8kg, EU 69.6kg, 미국 98.6kg). 그러나 육류의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상당량을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림 4> 베트남의 농식품 소비 추이



자료: The Time of Ho Chi Minh City. 웅웁 만 꾸영(2020)에서 재인용.

#### 4. 베트남의 농업정책 동향<sup>5)</sup>

베트남 정부는 1986년에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통하여 개혁·개방에 착수하였다. 도이머이 정책은 합법적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의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다양한 시장경제 영역을 창조하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도이머이 정책으로 베트남 경제는 점차 시장지향적으로 변화되었고, 농업부문에서도 농지제도를 비롯한 여러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표 11> 베트남의 주요 농업정책 개요(2019년)

구분	주요 내용
토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하지만 국가 주도의 단일 관리</li> <li>- 토지는 주정부에 의해서 할당</li> <li>-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부여</li> </ul>
신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국민신용기금 재편성</li> <li>- 신용기관의 농가 대상 대출 확대</li> <li>- 주정부의 지정 및 고지대, 원격지, 신경계구역, 소농 등에 대출 우선권 부여</li> </ul>
농산물시장 및 가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부는 모든 경제주체와 개인에게 농산물 시장경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부여</li> <li>- 농산물의 지역간 국가간 무역 확대 및 국내시장 접근장벽 제거</li> <li>- 수출시장 다변화</li> <li>-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시장전망 기구 설치</li> <li>- 농산물 가격에서 중간재와 서비스 가격 간의 불합리한 교환비율 제거</li> <li>- 특별한 경우에 투입 및 생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li> </ul>
농산물 수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부의 수출 장려</li> <li>- 수입농산물을 이용한 국내 생산 장려</li> <li>- 수출진흥을 위한 쿼터제, 관세율, 환율제도 등을 적극 활용</li> </ul>
농업진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재배, 가축사육, 보존 및 가공기술을 전파하고 전형적인 고급 경험을 전파</li> <li>- 농민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기량과 지식의 육성 및 개발</li> <li>- 농촌지역에서 생산 운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직 육성</li> </ul>
농업농촌개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무, 차, 커피 등의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지역의 개발</li> <li>- 농업경제 구조에서 축산 부문의 빠른 증가</li> <li>- 양식, 어획 및 가공 등 어업 부문을 강력하게 개발</li> <li>- 기본 산림 보호를 위한 임업 부문 개발</li> </ul>

자료: Nam Bui Hai(2019).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5) 이 절의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외농업시리즈 22: 베트남』(2019년)에서 인용하였다.

#### 4.1. 농지정책

베트남은 1980년대 이후 집단농장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농지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농지의 비옥함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와 유용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농산물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이 토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토지자금 전액은 전 국민의 몫으로 하며 국가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농지는 안정적이고 장기간으로 농업·임업·양식업에 종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할당되며, 농장 소유주는 할당된 기간 동안 농지를 변환·상속·대여·융자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토지 이용자들은 경제적·효율적 목적을 위해 토지를 보존하고 개선해야 하며,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넷째, 부적절한 목적의 토지 사용, 불법적인 토지사용권 이전, 토지 무단침해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에 토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임업·양식업의 토지이용의 제한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논벼의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기반에 투자하고 현대적 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 목적 이외의 토지를 할당받은 개인과 단체는 규정에 따라 벼 재배지를 보충하거나 논밭을 늘리기 위하여 투자해야 한다.

농가와 농민에게 할당된 단년생작물 재배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북부와 남동부 지방과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3ha 이하, 다른 지방과 도시에서는 2ha 이하이다. 그리고 농가의 다년생작물에 대한 면적 제한으로 평원에서는 10ha 이하, 중원과 산지에서는 30ha 이하이다. 임업용지에도 면적 제한을 두어 임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토지의 합이 30ha 이하이어야 한다.

#### 4.2. 농업구조 및 생산정책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3개의 주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중심의 농업생산을 개발하고, 적절한 보조 활동으로 생산을 촉진시키며, 산업 및 농장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둘째, 대규모 생산방식으로 재편하고 협력사를 개발하며, 체인연계 육성을 장려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과학기술의 적용을 촉진시키고, 새롭고 우수한 품종을 만들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혁신·자원 절약·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주로 소규모 농가가 시장개방에 따른 인센티브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격 통제가 사라지면서 농산물 생산자가격이 상승했고, 고정환율 제도는 국내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비료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입재 가격을 낮추고 토지사용권을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농산물 생산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농업생산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농경지가 제한적이고 천연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구조는 전통적인 식량농업에서 고무와 캐슈너트와 같은 다년생작물 및 돼지 중심의 축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는 수출 증가에 기여하면서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하이테크 농업과 스마트팜의 선진기술 및 전문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첨단 스마트농법과 공정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해외 수출이 가능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 4.3. 농산물 시장 및 가격정책

농산물 시장정책과 가격정책의 목표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양의 보증 및 가격 안정화 그리고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활동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농업시장시스템의 공급과 투입 그리고 저장서비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내시장에서 농산물이 적절히 소비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부가 인정한 관개·배수를 위한 전력공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시장기반 형태라도 농업개발 정책에 위배되며, 2인 이상 기업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 셋째, 전국·지역 및 지역 간의 농산물 공급 및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시장이 분할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다변화된 시장관계와 수출 제품을 다각화하고,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나 수출입 한도 및 환율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의 적절한 활용을 장려한다. 다섯째,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경제의 마케팅 능력을 증진한다.

농업부문에서 가격정책의 목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농업생산을 보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작물 가격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산업 및 서비스가격과 농산물가격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농산업 확장 실행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둘째, 이전의 다중가격(multi-price)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종류의 공급과 농작물 생산에 대하여 단일가격제를 시행한다. 셋째, 특수한 경우에 정부는 생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물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4.4. 농업부문 투자신용거래 정책

정부는 2008년에 투자신용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재정은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즉, 프로젝트별 대출금리는 총투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대출기간은 12년으로 정하였다. 또한 대출금리는 농어촌개발은행의 평균금리보다 낮지 않고, 대출에 대한 연체료는 대출금리의 15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지원 범위는 농업에 대한 투자 수요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농산물 구매 신청을 위한 신용거래정책은 최대 대출금액이 상품 가치의 100%(ha당 7백만 동 이하) 및 이자율 4%에 해당하도록 한다. 이에 근거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하는 생산자에 대한 신용거래와 아울러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의 농민들은 복잡하고 지속적인 지 않은 절차로 인해 신용거래지원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고인도 조건(EX-Warehouse)으로 정한 서류 제출 요건은 많은 농민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특히 기자재의 40% 이상 국산품 사용 요건은 실질적인 국산화율에 적합하지 않다. 기업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이 항상 변동하는 현실이지만 상장가격과 함께 서류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신용거래 지원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차, 후추, 캐슈너트, 가공 채소(포장, 건조, 반가공, 과일주스), 설탕, 육류, 가금류, 커피, 수산물 그리고 수공예품 등을 수출할 때 필요한 신용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최대 금리는 수출계약금의 85%이며,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에 물건을 팔거나 구매하는 가공커피나 캐슈너트의 경우는 수출용 수산물 구매자를 수급권자 목록에 추가하고, 수출신용대출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는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적용, 농지와 양식장의 확장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농업이 현대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아직도 농업 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미흡하고, 국가 주요사업과 프로그램 간의 연계도 부족하다.

#### 4.5. 농업부문 조세제도

정부는 2011년 초에 2020년까지 시행할 농지에 대한 면세·감세 결의안을 이행하는 상세 내용을 공포하였으며, 2011년 8월에 재무부는 위 결의안의 이행을 지도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농지에 대한 면세는 ① 연구용 농지 및 시범생산을 위한 농지, ② 정부가 할당한 농지 또는 빈민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할당된 농지, ③ 정부에 의해 할당된 토지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농가나 개인 또는 생산협동조합에 참여한 농가나 개인 등이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농지에 따라 모든 경제부문에 대해 50% 감세를 실시한다. 그리고 수출용 쌀을 보관하는 창고, 수산물, 채소, 과일, 커피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냉동창고 등을 건설하기 위한 농지는 5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008년 11월에 관개농업분야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관개 침해 및 보호에 관한 여러 조례의 이행을 상세히 기술하는 법령을 개정 보완하여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가 있는 농가 및 개인에 대한 관개수의 사용료 면제를 승인하였다.

### 5. 베트남의 농촌정책 동향<sup>6)</sup>

#### 5.1.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 2011-2020)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과 함께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장기 목표인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하위계획으로 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 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3대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다.

6) 이 절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베트남 농업』(2019년)에서 인용하였다.

## 5.2. 신농촌개발 프로그램 (The 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for 2016-2020; NTP-NRD)

베트남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신농촌개발프로그램(NTP-NRD 2016-2020)을 추진하여 제1차 계획기간 2010~2015년 및 제2차 계획기간 2016~2020년을 구분하였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지역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수정된 NTP-NRD(2016.8.16)를 마련하였는데, 2020년까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농촌마을 수를 50%로 설정하고, 지역별 목표는 북부 산간지역 28%, 홍강 삼각주와 북부 중앙지역 80%, 남부 해안지역 60%, 중부 고원지역 43%, 남동부지역 80%, 메콩지역 51% 등이다.

신농촌개발 프로그램(NTP-NRD)의 세부내용은 농촌마을 전체의 개발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을 농촌개발계획 국가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환경기반 개발 영역은 국가 기준 2~9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이들은 교통·관개·전기·학교·문화시설·농촌상업시설·통신·주택 등이 해당된다.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교통시설의 경우는 2020년까지 최소 농촌마을의 50%가 교통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개는 관개배수가 가능한 농지가 80% 이상이다. 주거시설은 표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가진 가구의 비율로서 지역별로 75~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5.3.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주요 내용(2019.9.19 발표)

2020년도에 종료하는 사회경제개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19년에 향후 10년간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초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5개년 개발계획 및 10개년 개발전략이 경제의 양적인 성장 및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10개년 개발전략은 시대 흐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 과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기업 중심의 발전 지향, 혁신적인 신정책의 파일럿 테스트 실행을 허용, 신규 비즈니스 및 기술(국가관리, 제조, 경영, 사회조직의 디지털화) 모델의 실행화 및 리스크 대응, 디지털기술·5G·인공지능·블록체인·3D프린터·사물인터넷(IoT)·네트워크 보안 등을 포함한 신기술의 응용 확대, 청정에너지·환경기술·생산성 향상·경제효율성 및 기초과학 연구 투자(핵심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에 초점, 국가혁신센터 및 스타트업 생태계시스템 개발) 등이다.

#### 5.4. 투자법 관련 : 정치부 의결서 No. 50-NQ/TW

베트남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지침과 정책 및 법률을 수립하는 등 국제관례에 따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외국인 투자부문은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였으며, 많은 다국적 기업과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및 상호 호환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인프라 및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른 국가산업의 파급력이 높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베트남 정부는 2019년 8월에 ‘2030년까지의 베트남 해외투자 협력에 대한 효율 증대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로드맵’ (베트남 정치부 의결서, No. 50-NQ/TW)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 및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업관련 사항으로 하이테크 농업 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 6. 맺음말

베트남은 1975년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일된 후 국가 통제에 의한 대규모 생산 체제의 경제 건설을 추진했으나, 식량 부족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저개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 1986년에 공식화된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계기로 시장경제에 합류하면서 빈곤했던 경제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 속도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 연속적으로 7%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2020년도에 베트남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일반적인 편이다. 또한 농업분야도 수출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기근에 시달렸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쌀 생산량의 증가로 빈곤 감소와 식량안보 및 사회 안정에 기여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따르면 2018년 농업부문의 성장 목표는 연간 계획을 초과하여 지난 7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농업부가가치는 약 4%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부문의 수출입은 400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무역 흑자는 8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수출

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쌀, 채소, 커피 등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하락이 베트남 농업 성장의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 농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베트남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7%에서 2015년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의 자본과 노동력 경쟁이 치열하다. 기후변화도 농업 발전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65%(약 6,000만 명)이며, 농업종사자 역시 약 40%로서 고용 측면만 보더라도 농업은 중요한 산업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자연 조건에 의존이 강한데다 저장·가공인 프라 등 연관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저생산성과 환경비용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팜과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하이테크농업(Hi-Tech Agriculture)에 투자를 장려하고, 농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농지제도 개선, 관개시설 운영, 시장유통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현재 베트남 농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여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배중하, 2017, “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세계농업 20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응옌 만 끄엥, 2020, 『AIDS 모형과 Tobit 모형을 이용한 베트남 육류 수요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정, 2019,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세계농업 22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현근 외, 2019,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해외농업시리즈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정보센터, 2019, 『베트남 농업』.
- FAO, 2019, Vietnam Factbook,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관련 홈페이지

-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http://www.mofa.go.kr/www/nation/>
-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 <https://www.mard.gov.vn/>
- 베트남 통계청(GSO) <https://www.gso.gov.vn/>
-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